

선박사고 다발 여수 소리도 ‘魔의 바다’

병목구간에 야간 시야 확보 어렵고 악천후엔 레이더 안잡혀
어선도 식별장치 끄고 조업…일주일새 두차례 등 잇단 사고

조업을 위해 여수 소리도 인근 해상으로 나갔다가 상선 등 선박과 충돌하여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3월 들어 일주일 간격으로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2건의 선박 충돌사고는 소리도 인근 상선이 항로에 물리고 근처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도 있어 해상에서는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등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1시께 여수시 소리도 남동쪽 55km 해상에서 4.99t급 연안복합어선인 A호가 6689t급 화물선 B호(러시아 국적)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최모(62)씨가 실종되고 선장 조모(61)씨는 사고 직후 탈출해 5시간 넘게 전복된 선박을 붙잡고 있다 새벽 6시15분께 인근 해역을 지나가던 저인망어선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해역 인근에서는 불과 8일 전에도 상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바람에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났다. 11일에는 오후 7시 52분께 여수시 소리도 남쪽 17.6km 해상에서 39t급 선단선 C·D호와 3만7794t급 상선 E호(이집트국적)가 충돌한 것이다. C·D호에 타고 있던 3명의 선원이 타박상을 입었다. 해경은 선단선과 상선 선장을 전방 주의 의무를 소홀한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처럼 소리도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는 2015년 1건(1명 실종), 2016년 1건(1명 사망), 올해는 현재까지 2건 (3명 부상, 1명 실종)이다. 소리도 인근 해상은 여수와 광양항에서 나오는 상선과 부산과 울산에서 중국으로 가는 상선들이 많아 대표적인 병목구간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인근에서 조업을 하는 선박도 많아 위험한 구간이다. 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어두워지면 상선이 불을 켜도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육안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날씨가

■소리도 해상 선박사고 위치도



좋지 않으면 소어선의 경우에는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아 충돌 위험이 크다. 해경 관계자는 “자동자율모드로 원하는 위치의 좌표를 찍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자율모드에 너무 의존하지 말

고 레이더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잠깐이라도 방심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에는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어선 위치발신장치(V-PASS), 레이더가 있어 사고를 피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 일부 어선은 항로조업이 잘되는 곳을 선점하고 자신의 위치를 숨겨 구역을 벗어나 불법조업을 하기 위해 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선박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게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수시에서도 어업생산과와 여수수협 어업정보통신부와 함께 1년에 한번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운항법과 과거 사고유형을 소개하며 예방교육을 펼지며 소화기 사용법과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어촌을 방문해 어민들에게 사고예방교육 하는 수밖에 없다”며 “어선사고예방시스템의 일환으로 5t급 이하 어선에 무전기를 지급하고 소화장비와 구명조끼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여수=김창화기자 chkim@

지적 재조사 비리 관련
무안군 공무원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 비서를 지낸 무안군청 공무원 A(6급)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적 재조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구속된 동료 공무원 B(6급)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B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지적 조사업체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3일 B씨 근무처인 종합민원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데 이어 지난 7일에는 A씨가 근무하는 체육시설사업소와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어떤 이유로 A씨에게 돈이 전달됐는지, 군수와 관련은 있는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인형뽑기방 점검
광주시 북구청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20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인근 인형뽑기방에서 경품 종류 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내용이 담긴 홍보전단지를 붙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광주·전남 산재 감소하는데 건설업 재해율만 증가

광주·전남지역 산업재해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건설업종의 재해율이 증가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광주·전남 산업재해율이 0.5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로 2015년(0.54%)과

비교해 0.03% 감소했다.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자 수 비율인 사망원인율은 1.07%로 전년(1.13%)보다 0.06% 줄었다. 재해율은 4년 연속, 사망원인율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은 제조업(0.72%→0.70%)·서비스업(0.38%→0.32%)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0.63%에서 0.71%로 증가했다. 사망재해 역시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했으나, 건설업은 1.13%에서 1.58%로 늘어났다. 건설업에서는 추락과 충돌 등 사고성 사망재해가 0.96%에서 1.42%로 0.46% 늘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1708명이 재해를 입어 가장 많았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96명), 선박건조 및 수리업(272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금속가공업(236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205명),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187명), 임업(183명), 고무제품제조업(181명) 등의 순이었다. 김영국 광주고용노동청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재해예방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며 “건설업 감독 비중을 늘려 재해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AI 불감증…전통시장 또 산닭 유통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광주지역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산닭 유통 지적<광주일보 2월28일자 6면>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산닭을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장에서는 음성적 거래를 넘어 닭장에 산닭을 전시해 놓고 현장에서 도축한 뒤 거래해 방역당국의 관리를 비웃고 있다. 17일 오후 3시 광주시 광산구 한 전통시장의 A통닭집 앞 소형닭장엔 살아있는 닭 10여마리가 들어있었다. 같은날 오후 북구의 B통닭집 앞 닭장에도 4~5마리 산닭이 들어있었다. 산닭 유통은 고병원성 AI 확산에 따라 지난해 12월19일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 등에 살아있는 닭의 거래를 중지한 것은 상인들의 피해에도 AI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산닭의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해당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통 금지가 118일째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달려있는데도 정부는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한다는 주장이다. B통닭집을 운영하는 엄주는 “최근 시골에서 육계 6마리를 데리고 왔다. 일부 손님들이 산닭을 주문해 손질을 부탁한다”며 “하루 2~3명이 산닭을 찾고 1마리당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9개 시·군에서 고병원성 AI 33건 발생, 109농가에서 200만 3000여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해 11월 해남을 시작으로 나주 11건, 강진·무안 각 5건, 해남 4건, 장흥 3건, 영암 2건, 구례·장성·진도 각 1건 등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 48개 시·군에서 369건의 AI가 발생해 910농가에서 3677만마리가 살처분됐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세월호 거치 대비 목포시 대책본부 구성

장례식장·분향소 등 마련
교통수송·보건위생도 만전

목포시가 세월호 선체 목포 신항 거치에 대비해 지원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분향소를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목포시는 세월호 목포 신항 거치를 앞두고 지원대책본부 구성, 해양수산부와 협조 대책, 미수습 희생자 관련 장례식장·분향소 마련, 교통문제 등 지원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지원대책본부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16개 실과 소속 공무원 총 19명으로 구성한다. 지원업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추진책을 마련하게 된다. 해수부, 희생자 유가족 및 미수습자 가족 등과 협의를 거쳐 장례식장, 분향소 등을 갖추고 편의시설도 제공한다. 현장 수습본부(해수부) 등 사무실 운영, 외부인사 영접, 의전 등을 돕고 각종 집기도 지원한다. 컨테이너, 숙박시설,

식당 등 시설을 설치 인허가 행정지원, 교통수송 및 안내 협조 등도 진행한다. 목포 신항 사용에 따른 각종 민원 대책을 세우고 방역 등 보건위생 대책도 추진한다. 시는 특히 해수부 요청에 따라 유실물 관리팀, 시설설치 지원팀, 차량 지원팀 등 3개 팀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유실물관리팀은 유실물 보관·관리 및 유가족에 인계 업무 등을 처리한다. 시설지원팀은 신항내 각종 시설 설치 및 사용 승인 등에 협조하며, 차량지원팀은 유가족 등 방문객에게 차량지원 등 업무를 담당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거치되면 유가족과 추모객, 정부 관계자 등의 목포 방문이 늘어날 것”이라며 “각별한 추모의 마음을 담아 유가족 등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담배 씹으며 피우는 습관 때문에 절도 ‘들뜬’

○…평소 담배 끝 부분을 씹으며 피우는 습관 때문에 붙잡힌 40대 절도범이 경찰서형.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모(41)씨는 지난 2016년 12월 2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임동 박모(32)씨의 물류창고에 침입해 10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760만 원 상당의 전선을 훔치고, 길거리

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등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꽂이 끝 부분에 특이하게 이빨 자국이 나 있어 수거해 DNA분석을 의뢰했는데 광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채취해 놓은 유전자와 일치하더라”며 “광씨가 ‘평소 담배를 씹으며 피우는 습관이 있는데 범행 당시에도 담배를 피우며 전선을 훔쳤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전은재기자 ej6621@

나주, 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히호텔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회사 사정상, 싸고 좋은물건,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